美 2026.7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

1. 고용지표 내용

□ 7월중 **비농업부문 취업자수**(Non-farm Payrolls)는 전월대비 **2.3만명 감소** [Bloomberg 시장예상치 +8.0만명]

o **민간부문** 취업자수는 **3.0만명 증가**[예상 +8.2만명]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**5.3만명 감소**

– 세부 업종별로는 교육·의료(+2.5만명), 건설(+2.2만명) 전문기업서비스(+1.8만명) 등은 증가했으나, 여가·음식숙박(-4.0만명), 도소매(-1.5만명) 등은 감소

o 지난 6월 및 5월 취업자수는 10.3만명 하향조정(6월 -3.7만명, 5월 -6.6만명)

□ **경제활동참가율**(61.5% → **61.4%**)[예상 61.6%] 및 **실업률**(4.2% → **4.1%**)[예상 4.2%]은 전월에 비해 **하락**

o 가계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26.4만명 감소한 가운데 이 중 취업자수*는 8.7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자수는 17.8만명 감소

* 기업조사 기준 조정치(농림업 및 자영업 제외, 다중취업 추가)는 전월대비 6.6만명 증가

o **U-6 실업률***은 7.9%로 전월(7.9%)과 **동일**

* 최근 4주간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, 경제적 이유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

□ **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**은 전월대비(0.3% → **0.1%**)[예상 0.3%] 및 전년동월대비(3.4% → **3.2%**)[예상 3.5%] 모두 **축소**

o **주당 평균노동시간**(34.3시간 → **34.3시간**)[예상 34.3시간]은 전월과 **동일**

주요 부문별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

(만명)

	26.5월	6월	7월	3개월 평균
非농업 전체	6.3	2.0	-2.3	2.0
-민간부문	6.1	3.0	3.0	4.0
(건 설)	0.2	0.5	2.2	1.0
(제 조)	-0.2	1.1	0.5	0.5
(도·소매)	0.8	0.0	-1.5	-0.3
(운수·창고)	0.1	-1.1	1.0	0.0
(전문·기업서비스)	0.6	3.4	1.8	1.9
(교육·의료)	2.4	5.4	2.5	3.4
(여가·음식숙박)	4.2	-4.3	-4.0	-1.4
-정부부문	0.2	-1.0	-5.3	-2.0

실업률 및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

작성자 : 김대석 차장

2. 금융시장 반응

□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직전 2개월치 증가폭도 큰 폭 하향조정되는 등 **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** 보인 것으로 평가

o 3개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6월 기준 7.7만명에서 2.0만명으로 크게 낮아졌으며, 업종별로는 여가·음식숙박(-4.0만명), 도소매(-1.5만명)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교육·의료(+2.5만명)도 추세(직전 1년 평균 +5.1만명)를 하회

o 한편 가계조사에서 **실업률***은 전월대비 **하락**하였으나, 이는 **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 하락(전월 61.5% <21.3월 이후 최저> → 61.4%)한 데 주로 기인**

* ('26.2월) 4.4% → (3월) 4.3% → (3월) 4.3% → (5월) 4.3% → (6월) 4.2% → (7월) 4.1%

–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 0.1% 상승에 그쳤으며, 최근 6개월 평균 상승률도 0.2% 수준에 머물면서 **임금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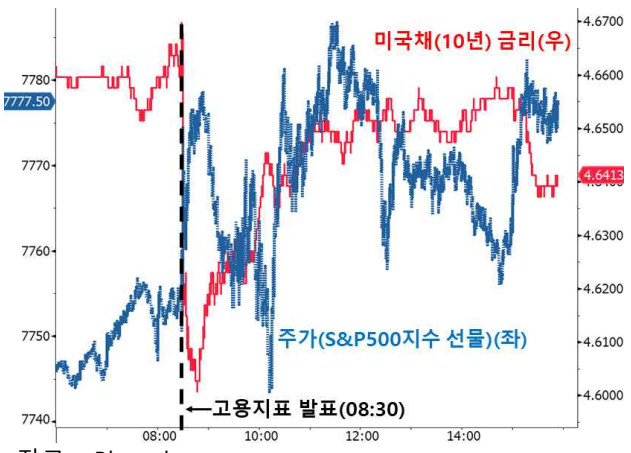
*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상승률도 전년동월대비 2.7%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, **가계소득 증가세 및 소비 여력은 약화될 전망**(Barclays)

□ 주요 투자은행은 금번 고용지표 부진으로 **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가 축소**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, 최근 주요 연준 인사들이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보인 만큼 **향후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 연준 정책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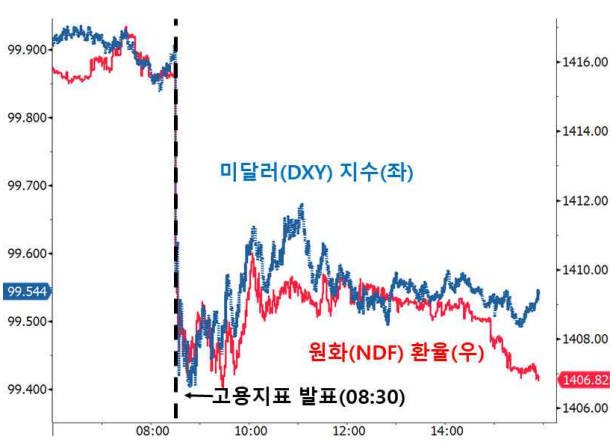
o 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**9월 금리 인상 기대(25bp 기준)는 절반 이하(전일 56.7% → 42.9%)로 낮아**졌으며, 연내 금리 인상 기대도 전일 1.4회 → 1.1회로 축소

□ **고용지표 발표(8:30am) 직후**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축소됨에 따라 **금리**는 하락하고 **미달러화**는 약세를 보였으며, **주가**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, **금리**는 인플레이션 경계감(8.12일 CPI 발표) 등으로 인한 차익실현 매도세 영향으로 **하락폭을 축소**

美 국채 금리(10y) 및 주가(S&P 500 지수 선물)



미달러화(DXY) 및 원화(NDF)



자료 : Bloomberg

<주요 투자은행 등 코멘트>

- **(Goldman Sachs)** 금일 고용 보고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예상치 하회, 직전 2개월치 큰 폭 하향 조정 등 **노동시장 둔화를 시사**.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전월대비 0.1%(반올림 전 +0.05%)에 그쳐 **임금 상승압력은 완화**되는 모습. **실업률은 4.1%로 하락했으나**, 이는 **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영향**이 큰 것으로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움. 이에 따라 그간 견조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제기됐던 **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**이며, 다음주 근원 CPI도 완화적으로 발표될 경우 금리 인상 기대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

- **(JP Morgan)**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직전 2개월치도 큰 폭 하향조정되는 등 **전반적으로 부진한 고용보고서**로 평가. 3개월 평균 기준 고용 증가는 기존 7.7만명에서 2.0만명으로 크게 낮아졌으며, 업종별로는 여가·음식숙박(-4.0만명), 도소매(-1.5만명)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교육·의료(+2.5만명)도 추세를 하회.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 0.1%에 그쳐 **임금 상승압력도 제한적**. **실업률 하락**은 **경제활동참가율**이 전월 큰 폭 하락에 이어 7월에도 12bp 추가 **하락한 데 주로 기인**

- **(Wells Fargo)** 마이너스 고용 증가, 직전 2개월치 큰 폭 하향 조정 등 **대부분의 세부지표가 노동시장 둔화를 시사**. 실업률 하락도 경제활동참가율이 0.1%p 추가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,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둔화. 특히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전월대비 0.1% 상승하는 데 그쳤고 최근 수개월 평균 상승률도 0.2% 내외에 머물러, **임금 상승압력이 인플레이션에 추가 부담을 줄 가능성은 낮음**. 이번 고용지표는 **7월 FOMC의 금리 동결을 뒷받침**하며, **연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**을 시사

- **(Barclays)** 3개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2.0만명으로 낮아지는 등 봄철 고용 호조가 일시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. 반올림 전 실업률은 4.09%로 하락했으나,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0.1%p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.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 0.1%에 그쳤으며, 최근 3개월 평균 **임금상승률**도 연율 2.7%로 **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가계소득 및 소비 여력은 약화**될 전망. 이에 따라 향후 고용 균형수준(breakeven rate)은 제로 수준까지 낮아지고 **하반기 소비 둔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**으로 예상

- **(Morgan Stanley)**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됐을 경우 실업률은 약 4.3%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,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. 이번 **실업률 하락**은 노동시장 강세보다는 **노동공급 감소를 반영**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

- **(Bank of America)**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는 **고용 모멘텀 약화를 시사하나, 노동공급 위축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우려를 크게 높일 정도는 아닌 것**으로 평가. 실업률은 4.1%로 하락했으나,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추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장 개선보다는 노동공급 부진을 반영한 결과. 다만 고용 균형 수준이 2.0만명 내외임을 고려할 때 월별 고용 감소가 일부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서, **이번 지표만으로 고용시장 악화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**

- **(WSJ)** 노동시장 기초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. 실업률은 4.2%에서 4.1%로 하락했으나, 이는 취업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한 인구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. 이번 고용지표는 **연준이 9월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지는 요인**으로 작용할 전망